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마음속에서 빛나는 별을 기억하라

일한 길이다. 선은 마치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듯이 타자의 영혼을 이해하고 감싸는 것으로, 선한 사람은 주체와 객체가 일치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 손해와 이익을 먼저 따져 보거나 상급하게 불신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선한 의지의 삶을 루카치는 '진정한 삶으로의 귀환'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정치는 진정한 삶을 위한 선한 의지를 펼치는 것이고, 좋은 정치가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선한 의지는 시대를 막론하고 조롱과 왜곡 그리고 때도의 대상이었다. 이런 현상이 지식 교육과 자기 개발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심해지는 것은 맹목적인 계몽의 역설이다. 알수록 무지해지고 들을수록 사실이 왜곡되는 질곡 속에서 진실은 공허하고 주장들만 요란하다.

앞뒤 다 생각해 버린 '합리적' 사고법은 우리 삶을 '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 한 장의 계산서'로 가르친다. 조건 하나하나를 계산하고 따져 보며 없는 권리까지도 행사하는 것을 탁월함으로 배운다. 이런 교육은 선의지의 가치를 비웃으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능력으로 둔갑시킨다. 그러나 삶은 다른 사람과 만들어 가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삶을 관계와 만남이 아니라 경

쟁의 아수라장이라고 여길 때,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도 실상은 근거 없는 소문의 파편들만 난무하는 이유다.

이 혼란은 나에게 좋은 것이 곧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진리로 만든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 되는 세상은 어떨까? '나'와 '우리'만 있을 뿐 타인은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속의 누군가를, 결국에는 '나' 자신마저 소외된 타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악순환을 피하는 길은 좋은 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관계의 윤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때, 비로소 옳음을 말할 수 있고, 좋은 정치의 역할이 있다. 비단 직업적인 정치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지점에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우리 마음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도덕률을 생각한다. 칸트는 "갑탄과 경외심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 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 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묘비명으로도 유명한 말이다. 별이 어두운 밤을 밝히면서 길을 안내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삶의 의미를 밝히는 별이 빛난다. 사람에게 본래적으

로 내재된 마음속 도덕률이다.

이 도덕 법칙은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 옳음으로 나가게 하는 선의지의 별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도덕 법칙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행동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선의지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도덕 법칙은 어떤 조건에 요구도 계산도 없이 따르는 마음속 명령으로 '정언명령'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마음의 별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일까. 혹시 마음속 별을 일부러 가리거나 자주 외면하거나 아예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는 마음속 별을 지키려던 사람들을 오히려 때도하거나 비난하고 기껏 해 봐야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지고 있지조차 여태 몰랐던 크나큰 '빛'이다.

우리는 마음의 별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답하고 싶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말이다. 마음속에서 빛나는 도덕 법칙은 사람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므로. 마음속 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이들에 대한 늦은 빛 값음의 시작이므로.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집착

까요? 어쩌면 집착은 목적 대상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방자하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해소하려는 비정상적인 심리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널리 알려진 영화는 아니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빛나간 집착을 소재로 한 '4등'이라는 수작(감독 정지우)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한 엄마는 큰 아들을 수영 선수로 성공시키고 싶어 아들이 수영 감독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실을 알면 서도 이를 용인합니다.

만년 4등으로 메달을 따지 못하는 큰 아들의 앞날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결국 전국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큰 아들은 이후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고 수영을 즐기면서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등을 목표로 하는 감독의 폭행은 더 심해집니다. 역시 엄마는 이를 묵인하고, 체벌을 참지 못한 큰아들은 수영부 차장으로 수영장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수영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엄마의 본심이 담긴 말이 튀어나옵니다. '누구 맘대로 그만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가

그만 둔다고 하면 그만 둘 수 있다고 생각하?'

아빠의 도움으로 수영을 그만둔 큰아들에 대한 엄마의 집착은 둘째 아들에게 향하고, 둘째 아들을 공부로 성공시키기 위한 엄마의 집착은 큰아들에게 가졌던 꿈이 물거품이 된 만큼 더 집요해 집니다. '나는 엄마의 희망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거나 학원을 통학시키면서 반복시키기까지 합니다. 형에게 집중되었던 엄마의 관심이 자신에게 돌아온 상황에 잠시 행복해 했던 둘째 아들은 '차라리 형이 다시 수영을 시작하면 좋겠어.'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삶의 변화가 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본래 꿈꾸었던 자신의 삶을 대리 실현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 엄마의 모습과 그러한 집착으로 인해 인생을 담보 잡히는 자녀들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집착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계엄을 고려했던 기무사 문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화 사회 소요 상황을 제압할 계획을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해서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에 필자는 법률가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금과 같이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마치 그 오래 전 유신을 수호하려던 군부의 망령이 되살아 내려 했다는 끔찍한 시도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계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라의 안정을 위해, 불안정한 안보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뒤흔어진 집착의 이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의 욕망,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질적하고 검은 심리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겠지요. 결국 옛날 집착으로 인해 쌓은 업보는 모두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지를 빼돌린 엄마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던 기무사의 누군가이든 말입니다.

기고



임영길
도시교통연구원장

남도의 꿈, 광주 송정역이여 비상하라

4000명이 이용했고 꾸준히 늘면서 최근에는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역사가 협소한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내년엔 광주에서 국제 행사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열릴 예정이니, 이용객 불변이 가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8년간 진행했던 복합환승센터 사업까지 무산되면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역사(驛舍)는 고객이 도착하여 주차·발권·대기·승차하는 교통기능은 물론 지역 간 소통, 문화 체험, 쇼핑 공간으로 활용돼 지역 관문이자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송정역은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작고 불편하여 대합실과 선상 통로를 확장하는 개량 공사가 이뤄졌고, 앞으로는 주차 타워 신축과 이면도로 확장이 요구되는 등 시간마다 땀집식의 공사가 벌어질 예정이다. 늦었지만 이

제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남도의 꿈, 광주 송정역은 계속해 발전할 기회가 많다. 88년 된 경전선 노후철도가 향후에 전철화돼 광주-부산 구간을 2시간대로 운행한다면 부산-경남 방문객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양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지자체에서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라 향후에 이곳은 호남선, 경전선, 달빛송정역의 부지와 부족한 여객 시설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요 KTX역의 형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로, 대전역은 선로 위 공간을 활용하여 선상 주차장 증설과 대합실을 넓히고 편의 시설을 설치, 주차 기능 또한 역 주변에 대규모로 조성해 고객 서비스를

대폭 향상시켰다. 이처럼 선상 역사로 확장될 경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환승이 용이하며 문화와 쇼핑 시설까지 갖추게 돼 그야말로 시민이 좋아하는 역이 될 것이다.

광주 송정역이 호남의 관문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다. 복합환승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의 역사를 건설한 것도 정부이니 협조하고 부족한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보완해 주는 것이 소외받은 우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 때 입후보자 상당수가 광주 송정역의 시설 확충과 역사권 활성화를 주장한 것을 볼 때 본 사안을 정부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나 시민들도 힘을 겹고 다함께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광주 송정역이 지역 관문이자 철도 요충지가 되고 대륙 철도로 뻗어가는 남도의 중심 역으로 부상하기를 갈망한다.

社說

폭염에 쓰러지는 취약 계층 안전망 강화를

끝 모를 폭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 지역에서도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찜통더위 속에서 냉방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주택 등에서 지내다 지병이 악화하거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아가는 천 모(75) 씨는 지난 25일 뽕약벌 아래 장사를 하러 나섰다가 광주 양동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25t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같은 날 광주 북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는 70대 남성이 현관문을 열어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바로 전날에도 뇌졸중 병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냉방 시설이 없는 무더운 주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직접적 사인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아니지만, 최근 계속된 무더위가 건강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온열 질환 환자도 대부분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1644명(사망 18명)의 환자 가운데 50대 이상 60%를 차지했으며, 광주·전남에서도 152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폭염 속에도 도로에서 리어커를 끌며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광주 지역만 780명에 달해 관심이 절실하다.

문제는 18일째 계속된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 기세도 꺾일 기미가 없다는 전망이 있다. 지난 27일엔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8.5도까지 치솟아 7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번 주는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다.

살인적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전 하나 방문 점검만이 아니라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자연재해나 사고로 치부해 개인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복지의 관점에서 구조적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수출 해마다 감소 광주 김치 본산지 맞나

광주 지역 김치 수출이 해마다 줄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수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여 개 김치 제조업체가 있는 광주 지역의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2.6t, 금액으로는 1만8900달러에 그쳤다.

이는 2016년의 11.7t, 5만4000달러와 비교하면 액수 기준으로 65%가 줄어든 것이다. 또한 2015년의 25t, 9만5700달러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김치 수출이 급감한 것은 이 지역 대부분 업체의 규모가 작고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생산되는 다른 지역의 김치 산업에 비해 광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규모 생산으로 더 많은 수출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 규모가 작다 보니 바이어 초청이나 샘플 제작과 운송 등 수출 추진 과정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치는 우리의 오랜 문화와 지혜가 빛어낸 발효음식으로서 유네스코는 2013년 우리 김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김치 중주국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김치 중주국이라면 광주는 그동안 '김치 중주 도시'를 자부해 왔다. 지난 1994년 이래 해마다 김치축제까지 열며 김치 산업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광주시는 최근 김치 수출업체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수출 물류비, 포장재, 운송비, 수출 김치 샘플 제작과 운송비, 바이어 초청 경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고작 7500만 원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이제 김치 산업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재료비와 물류비 저감 방안을 강구해 광주 김치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문학의 여러 기능 중 하나는 변화해가거나 변화해 버린 세상의 모습을 언어에 담아 보여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설이나 시·희곡·수필 등을 '읽어' 보며 '아,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구나'라는 긴 '정말 우리 사회가 많이도 변해 버렸군' 따위로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며 부듯 해하곤 한다.

하지만, 요즘엔 '문학이 보여 주는' 세상도 변했지만 아예 문학 자체가 변화해 가는 듯한 모습도 눈에 띈다. 언어뿐만 아니라 회화까지도 문

마디로 문화와 회화의 중간 형태를 지닌 작품인데, 지난 50년 역사상 맨부커상 수상 후보에 '그래픽 노블'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부커상 심사위원회는 "소설의 변화된 형태를 고려하면 그래픽 노블이 후보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며 "그래픽 노블은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점점 더 전면에 나오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글이나 그림이라는 표현 수단의 차이보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설의 본질적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2016년 미국의 대중음악 가수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어느정도 예고됐던 것이기는 하다. 당시 노벨상위원회는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밥 딜런은 훌륭한 미국 음악 전통과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 냈다"고 강변했었다. 프랑스 화가 마르셀 뒤샹이 화상실 변기를 예술품으로 격상시킨 '파격'이 당연시되는 지금, 문학도 '회화의 융합'이라는 혁명의 바다에 몸을 담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융합

본질적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1차 후보에 미국 작가인 닉 드로나소(29)의 그래픽 노블 '사브리나'(Sabrina)를 지명했다. '그래픽 노블'은 말 그대로 '그림이 그려진 소설'이다. 일반 소설로 보기에 그림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냥 만화로 보기에 글자의 비중이 훨씬 크다. 특히 소설을 가득 채운 그림은 만화보다 훨씬 '예술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만화 컷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글들은 일반 소설의 그것보다 짧고 감각적이다. 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당)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독자 상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4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